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A Study on the Seong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金 重 權(Kim, Joong-Kwon)*

◁ 목 차 ▷

- | | |
|----------------|------------------|
| 1. 緒 言 | 4. 讀書回數 및 讀書沮害要因 |
| 2. 成宗朝 經筵制度 | 5. 結 言 |
| 3. 資料選定 및 讀書行態 | <參考文獻> |

<초 록>

본고는 조선시대 성종이 왕권을 잡은 뒤 경연제도를 재정비하고, 그 제도 하에 실시된 독서행태와 독서토론 내용 등을 분석하여 성종의 독서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종은 홍문관을 발전시켜 端宗朝에 실시된 朝講, 晝講, 夕講과 夜對를 실시하였으며, 25년 동안 그가 읽은 책은 「論語」, 「孟子」, 「資治通鑑」, 「尙書」, 「大學衍義」 등 총 27 종이 었다. 이 책들 중 「資治通鑑」은 완독까지의 기간이 13년 이상 소요되었으며, 그와 독서에 참여한 경연관만 해도 200여명이나 되었다. 그의 독서행태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교육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었으며,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읽은 내용을 토론과 함께 정치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가하였다. 각 講別로 독서회수를 조사한 결과 7·8년까지는 열성적이었으나 스스로 왕권을 행사하면서부터는 왕비와의 관계, 날씨문제, 건강문제 등의 원인으로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要語 : 경연, 독서력, 성종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kkim@gwangju.ac.kr)

접수일: 200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is to study the Seongjong's reading career in the Gyeongyeon(經筵) of Joseon Dynasty.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1. The Gyeongyeon(經筵) that was repealed by the king Seajo(世祖) was developed by the king Seongjong(成宗) in early Joseon Dynasty.
2. The king Seongjong(成宗) have had several more of the reading discussion than pre-kings, and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reading discussion was 3,774(朝講), and the Jugang(晝講) was 2324, Seoggang(夕講) was 2,142. He was the king who liked to study for five years, but at the end of long-term seizure of power he was not almost present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3. The reading materials that he read at those day included Noneo(論語, Maengja(孟子), Jachitonggam(資治通鑑), Goryeosa(高麗史), Daehagyeonye(大學衍義), and Songwonjeolyo(宋元節要) etc., these books were necessary to build up king's character and rule the country.

Key words : Gyeongyeon, Seongjong, reading career

K C I

1. 緒 言

성종(1457~1494)은 세조의 장자인 의경세자와 韓確의 딸 한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혈(姪), 세조 7년(1461)에 者山君에 봉해졌고, 세조 10년(1464) 者乙山君으로 개칭하였다. 세조 13년(1467) 10살에 한명회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예종 1년(1469) 11월에 예종이 죽자 형 월산군(당시 16세)을 제치고 할머니 정희왕후의 추천으로 13세에 왕위에 올랐다. 그는 25년 동안 집권하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도학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학문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 왕이다. 잡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분야별로 習讀官制度를 두고 관련 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독서토록 했으며, 문신들에게는 독서당을 마련하여 특별휴가를 주어 독서를 권장하고(賜暇讀書制度), 그 들을 자주 불러 읽었던 분야를 시험하기도 하여 성적이 좋으면 상을 주고 좋지 않은 자는 이직시키면서 독서를 권장 하였다. 또한 내관들까지 실력향상을 위해 경연관들에게 특별히 강독을 부탁하는 열의도 보였다. 그 밖에 성종은 학문이 깊고 문장에 조예가 있는 선비들에게 많은 책을 저술토록하거나 교서관을 통하여 간행토록 하였으며,¹⁾ 성균관에 존경각이란 도서관을 설립하여 여러 선비들이나 유생들에게 독서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다.

왕 자신도 선비들 못지않게 선왕들이 실시해온 전례에 따라 경연에서 경연관들과 하루에 조강, 주강, 석강, 야대 등 4회씩 열심히 독서와 토론을 병행하였다. 실록에서도 성종이 학문에 독실하여 하루 세 때에 책을 읽고 밤이면 玉堂에서 숙직한 선비와 글을 읽고 끝난 후에는 신하에게 술을 하사하며 고금의 치란에 대해서 질문하고 때로는 민간의 노고도 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독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성종 자신의 독서력은 어느 정도인

1) 成俔. 慵齋叢話 卷2. 成宗朝에 저술된 책은 經國大典, 東國輿地勝覽, 東國通鑑, 東文選 서거정의 四佳集, 김수온의 拭疣集, 강희맹의 私淑齋集, 신숙주의 保閑齋集, 성현의 風雅錄, 奏議, 浮休子談論, 慵齋叢話, 錦囊行蹟, 風騷軌範, 樂學軌範, 桑榆備覽 등이며, 교서관에서 간행된 책은 史記, 左傳, 四傳春秋, 前漢書, 後漢書, 晉書, 唐書, 宋史, 元史, 綱目, 通鑑, 東國通鑑, 大學衍義, 古文選, 文翰類選, 事文類聚, 歐蘇文集, 書經講義, 天元發微, 朱子成書, 自警編, 杜詩, 王荊公集, 陳簡齋集 등이다.

지 아직까지 상세하게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종이 제도적으로 독서를 행한 경연제도와 그 곳에서 실시한 독서자료 선정 및 독서행태, 講別로 경연회수 등을 파악하여 그의 독서력을 구명해 보고자 한다.

2. 成宗朝 經筵制度

고려 睿宗 때부터 실시된 경연은 제왕의 교육이자 독서토론의 산실이기도 했다. 조선조에 와서 더욱 발전된 경연은 왕 자신의 수양은 물론 백성들을 올바르게 교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를 잘 다스려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하에 실시되어 왔다. 성종도 선왕들이 행했던 제도를 본받아 경연에서 경연관들과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면서 그 목표를 실현시키려 했던 왕이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모든 면에 부족한 어린 왕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정희왕후인 할머니를 비롯한 신하들은 가장 당면한 과제가 성종을 교육시켜 훌륭한 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즉위하자마자 12월 9일에 高靈君 申叔舟는 경연에서 읽어야 할 과목과 그 방법 및 경연관의 수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論語」를 進講할 것

1. 朝講에는 소리 내어 읽고(音讀), 뜻풀이(解釋)를 각각 경연관이 3 번씩한 후에 임금이 音讀과 解釋을 각기 1번씩 하고, 晝講에는 임금이 아침에 배운 音讀과 解釋을 각기 1번씩 읽도록 할 것.

1. 朝講에는 當直 院相 2인, 經筵堂上 1인, 郎廳 2인, 承旨 1인, 臺諫 각 1인, 史官 1인과, 晝講에는 승지 1인, 經筵郎廳 史官 1인이 宮中에 入侍하여 상시로 音 20번, 釋 10번을 읽을 것.”²⁾

본 사목을 본 대왕대비가卒哭 전에는 예절을 갖추기도 어려운데 시강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의사를 보이자 院相들의 논의로 朝講에는 臺諫과 經筵郎廳

2) 『朝鮮王朝實錄』成宗 卽位年 12月 戊午(9日) 卷1, 冊8, 444.

1인을 제외하자고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다음날 사헌부의 건의로 대간을 다시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³⁾

<표 1> 卽位時 經筵事目(申叔舟案)

經筵의 區分	朝講, 晝講
讀書 方法	• 朝講에는 경연관이 音讀과 解釋을 3번씩 하고 난 후 임금은 각 한 번씩 할 것 • 晝講에는 임금이 아침에 배웠던 音讀과 解釋을 각기 한 번씩 읽도록 할 것
參與數	• 朝講에는 원상 2명, 경연당상 1명, 낭청 1명, 승지 1명, 대간 각 1명, 사관 1명 • 晝講에는 승지 1명, 낭청 1명, 사관 1명
場所	寶敬堂에서 宣政殿으로 이동
經筵 資料	論語

<표 1>에서 보듯이 즉위년에는 경연을 조강 주장2 강으로 구분하였으나 그 이듬해부터 석강을 포함하여 하루에 3강을 실시하였다. 주로 3강은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였을 때 행해지는 규칙이다. 단종 때도 그러했듯이 성종도 13세의 어린나이에 왕위를 계승하였기 때문에 3강의 규칙을 취한 것이다. 조강에 강독한 것은 주장이나 석강에 복습하는 형식이었으나 각 강별로 과목을 설정하여 강독할 때도 있었다. 야대에서는 숙직한 경연관을 초대하여 왕과 별도의 책을 토론하고 토론이 끝나면 음식을 접대하면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3강 중에서 조강을 흔히 경연이라 하였으며, 경연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정사에 관한 토론도 실시하였다.

경연에 참여자 수를 보면 <표 1>에서는 조강에 원상이 2명이 참석한 것으로

3) 『朝鮮王朝實錄』 成宗 卽位年 12月 己未(10日) 卷1, 冊8, 444. “司憲府掌令 朴崇質과 司諫院正言 丁克仁 등이 와서 아뢰기를, ‘卒哭 전에는 임금께서 政事를 보살피지 않으므로, 臺諫이 나아가 뵈울 시기가 없게 됩니다. 지금 經筵에서도 또한 入侍하기를 허가하지 않는다면 비록 進言하려고 하더라도 길이 없으니 入侍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傳敎하기를, ‘좋다’ 하였다.”

되어 있는데 선왕들은 3명으로 정한 다음 순번으로 1명씩 참여하도록 하였다. 성종 때 원상의 참여 인원을 늘린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9년 동안 계속해서 2명이 참여하다가 승정원에서 성종 9년 6월 5일 領議政 鄭昌孫이 나이가 많아 진퇴가 어려우니 앞으로는 매일 1명만 입시하게 하자는 건의에 따라 그 이후부터는 1명으로 결정되었다.⁴⁾ 낭청은 예종 때 낭관이라 하여 6명을 임명하여 이들이 경연관 역할을 하였는데 성종 때도 낭청 6명을 임명하여 시강관, 시독관, 검토관 등 역할 분담을 뚜렷하게 하였다.

경연사목을 정한 후 1년 1월 7일 성종은 처음으로 寶敬堂에서 경연을 열게 되었다. 당시 경연에 참여했던 인물은 領事 申叔舟, 尹子雲, 同知事 鄭自英, 都承旨 李克增, 大司憲 李克敷, 大司諫 姜子平, 侍講官 유권, 記事官 金儆이 入侍하였으며, 정자영이 경연사목의 규정대로 「論語」의 <學而篇>을 進講하면서 音讀과 解釋을 각기 세 번씩 하고, 성종은 음독과 해석을 각기 한 번씩 하였다. 하루는 대왕대비가 경연을 지켜본 후 정자영이 해석한 음과 뜻이 분명하지 않아 왕이 처음 배우는데 이해하지 못하므로 鄭孝常으로 교체를 원하였다. 그러나 신숙주는 정자영이 경학에 밝아 진강을 잘한 사람인데 처음이라 그런 것이라고 무마시키기도 하였다.⁵⁾

성종이 조강과 주강에만 나가고 경연사목에서 제시한 석강을 실시하지 않자 시간원 金壽寧 등은 “많이 아는 것은 德을 쌓는 것이고, 많이 듣는 것은 事業을 세우는 것이니, 학문은 사람에게 있어서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학문의 道는 배가 떠서 흘러가는 것과 같아서 날로 進就하지 않으면 날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임금들은 때로 영민하는 것을 힘쓰고 날로 진취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間斷을 용납하지 않았으니, 緝熙, 單心の 詩가 이로써 지어졌습니다. 지금 경연에는 다만 아침과 낮에만 나아가시고, 夕講에는 나아가지 않으시니, 두렵건대 때에 맞추어 研磨하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빌건대 옛날 제도에 의하여 講讀하시고, 또 경연관으로 하여금 날마다 교대하여 宿直하게 하여 顧問에 대비하게 하시고,

4) 『朝鮮王朝實錄』成宗 9年 6月 乙未(5日) 卷93. 冊9. 610.

5)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1月 丙戌(7日) 卷2. 冊8. 452.

宦寺도 또한 厚崇하고 조심하는 자를 선택하여 給事로서 돕게 한다면 매우 다행 하겠습니까.”⁶⁾라는 글로 夕講실시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이는 곧 성종의 독서 자세를 처음부터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은 사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1년 2월 20일 처음으로 석강을 실시하였다. 당시 첫 석강에 참여한 수는 承旨 1명, 經筵官 2명, 史官 1명이었고, 이날 낭청 1명도 처음으로 입직하였다. 경연자료와 독서범위 및 방법에 있어서는 「論語」〈學而篇〉부터 시작하여 임금이 앞서 2일에 授業한 것을 한 번 音讀하고, 大文을 解釋해서 한 번 읽는 것이었다.⁷⁾

이와 같이 성종 초기에는 신숙주 안을 수용하였지만 점차적으로 경연제도가 활성화되고 경연관의 수도 제도화 되었다.

<표 2> 經筵官 品階

品階	正1品	正2品	從2品	正3品	正4品	正5品	正6品	正7品	正8品	正9品
職責 및 數	領事 3명	知事 3명	同知事 3명	參贊官 7명	侍講官	侍讀官	檢討官	司經	說經	典經
兼職	議政이 겸임			承旨와 副提學이 겸임						

성종조에 완성된 「경국대전」경연조의 내용에서는 경연관을 堂上官과 郎廳으로 구성하였는데 당상관은 영사 3명, 지사 3명, 동지사 3명, 참찬관 7명으로 모두 겸직하였으며, 문관이 아니어도 가능했다. 영사는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하고, 정 2품인 지사와 종2품 동지사 중에서 각각 3명씩 임명하였으며, 참찬관은 정3품 승지와 홍문관부제학이 겸직했다. 낭청은 정 4품 시장관, 정 5품 시독관, 정 6품 검토폰으로 모두 문관인 홍문관원이 겸직하였다. 시장관은 直提學 典翰, 應敎, 副應敎가 겸하였고, 시독관은 교리와 부교리가 겸하였으며, 검토폰은

6)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2月 癸亥(14日) 卷3. 冊8. 465.

7)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2月 己巳(20日) 卷3. 冊8. 467.

8) 「經國大典」吏典, 正三品衙門, 經筵條. 13 下.

修撰과 副修撰이 겸하였다. 정7품 司經, 정8품 說經, 정9품 典經은 참외직으로 홍문관의 博士, 著作, 正字가 각각 겸임하였다. 성종 17년 5월 7일에는 宰相 중에서 경연에 참여할 사람을 선발하여 特進官으로 임명하고, 2명씩 돌아가며 경연에 참석하여 왕과 독서토론은 물론 정사문제도 논의하도록 하였다.⁹⁾

<표 1>의 신숙주안과 <표 2>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영상을 비롯하여 경연관 수가 증가되었지만 사관, 사헌부, 사간원의 참여여부가 제외되어 있다. 비록 사관은 『經國大典』에 기록되지 못했지만 공식적으로 경연에 참석하여 강독내용, 참여자, 독서토론내용 및 토론 후 정치적인 내용 등 2부분으로 나누어 경연일지에 기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臺諫도 각 1명씩 참여하여 정사를 의논하였다. 당시 경연 장소는 처음에 寶敬堂을 사용하다가 보경당은 왕의 좌석이 북쪽으로 향하였다하여 성종 1년 3월 9일에 宣政殿으로 바꾸었다. 주로 전각 안에서 경연을 실시하였으나 장마철에는 재변이라 하여 선정전 처마 밑에서,¹⁰⁾ 가뭄이 심할 경우는 仁政殿 처마 밑에서 실시할 때도 있었다.¹¹⁾

경연 시 경연관의 의복은 초기에는 黑圓領을 입었는데 성종 3년 10월 23일부터는 평상복을 입고 편한 자세로 진강하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당 경연관의 수, 경연장소, 경연 시 의복, 경연방법 등이 확정되면서 성종조 경연제도는 전조에 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3. 資料 選定 및 讀書行態

독서 경험이 부족하여 선택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독자의 성향에 따라 책을 선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사람마다 성장배경과 성격, 연령,

9) 朝鮮王朝實錄. 成宗 17年 5月 辛亥(07日) 卷191. 冊11. 124.

10) 朝鮮王朝實錄. 成宗 4年 6月 辛巳(22日) 卷31. 冊9. 32.

11) 朝鮮王朝實錄. 成宗 5年 閏6月 癸巳(10日) 卷44. 冊9. 117.

지식의 정도, 환경에 따라 책을 선택하는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부터 선비, 문신들도 유가경전류를 대상으로 각각 스승의 추천과 자신의 독서 경험에 따라 책의 선후를 정하여 독서하였다. 조선조의 제왕들도 간행된 책의 중수가 적은데도 독자적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경연관들이 추천해준 책을 대상으로 독서해야만 했다. 그 중 성종도 예외는 아니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성종에게 선정된 책이 어떤 책인지, 누가 책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성종의 독서행태는 어떠한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성종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자료선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연에서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할지 판단이 부족하였다. 신하들 역시 어린 임금에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여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다. 성종이 집권하자마자 선정 받은 책은 신숙주가 추천한 「論語」였다. 이 책을 집권 1년(1470) 1월 7일에 처음으로 읽기 시작하여 11월까지 경연관들과 완독하였다. 어린 나이에 「論語」가 독서자료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세자시절에 「小學」 등의 어린이 서적은 모두 읽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성종 자신의 수양을 위해 四書 중 가장 먼저 「論語」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論語」를 완독한 뒤 12월부터 「孟子」를 조강, 주장, 석강으로 나누어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였다. 성종 2년(1471) 2월 1일에는 시강관 金季昌이 「孟子」에만 치중하다 보면 「論語」의 내용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5, 6일이나 10일에 한번씩 「論語」 한편씩 읽도록 권하기도 하였다.¹²⁾ 같은 해 2월 15일에는 「孟子」를 읽으면서 경연관들끼리 인용문구의 한계에 대한 건으로 심하게 다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經筵에서 「孟子」의 내용 중 전에 공부한 것을 읽다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혹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혹자는 몸을 수고롭게 하는데…… 이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리이다.”라는 부분에 이르러, 영경연사 尹子雲과 金國光 등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故曰]’이라는 곳에서부터 ‘공통된 의리이다.[通義也]’라는 부분까지의 내용이 모두 古人이 한 말입니다.’하니 동지경연사 鄭自英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르기를[故曰]’이라는 곳에서부터 ‘남에게 다스려진다.[治於人]’라는 곳까지가 곧

12) 「朝鮮王朝實錄」 成宗 2年 2月 甲辰(1日) 卷9. 冊. 553.

고인이 한 말입니다.’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다가 高聲에 이르기 까지 爭辯이 그치지 아니하였다. 윤자운과 김국광이 政院으로 물러가서 아뢰기를, ‘進講할 때 정자영이 자기의 識見을 고집하다가 곧 큰 소리를 내게 되었으니 신 등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하니 전지하기를, 이와 같이 論難하지 아니하면 시비를 分辯할 수가 없느니라.”¹³⁾

이들이 열띤 토론을 한 부분은 孟子 藤文公章 句上-4절에 있는 문구로

“故曰或勞心, 或勞力,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 治於人者食人, 治人者食於人, 天下之通義也”(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혹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며, 혹은 힘을 수고롭게 하나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은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려진다 하였으니, 남에게 다스려지는 자는 남을 먹여주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게 얻어먹는 것이 공통된 의리이다.)부분이다. 이 문장은 孟子가 陳相과의 대화 중에 옛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한 내용인데, 성종이 경연관들과 토론한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을 사관이 기록하여 전한 것이다. 요지는 尹子雲과 金國光은 ‘通義也’까지 옛사람의 말을 맹자가 인용한 문구로 봤으며, 정자영은 ‘治於人’까지 고인의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윤자운과 김국광은 정자영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임을 끝 문장에서 암시하고 있다. 이는 문맥상 맹자가 대인과 소인의 역할분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상과 답론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말을 ‘治於人’까지 인용하고 그 이하의 문구는 맹자 자신의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면 정자영의 견해가 합당하다. 성종 2년 3월 12일에는 성종이 성균관을 방문하여 제사지내고 명륜당에서 강독한 것을 청취하는 중 시강관 丘從直이 대학을 강독하면서 제왕은 반드시 格物致知를 공부할 것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¹⁴⁾ 사간원에서 구중직을 국문하여 파면하자는 건의를 내리기도 했으나 연로한 신하라 하여 죄를 묻지 않았다. 그 후 구중직은 경연에 들어온 기록이 없다.

성종은 집권 2년에 「孟子」, 「中庸」을 읽으면서, 같은 해 윤9월부터는 야대에서 「國朝寶鑑」을 병행하여 읽기 시작하였다.¹⁵⁾ 그 후 성종 3년(1472) 6월에는 「書

13) 「朝鮮王朝實錄」成宗 2年 2月 戊午(15日) 卷9. 冊8. 555.

14) 「朝鮮王朝實錄」成宗 2年 3月 乙酉(12日) 卷9. 冊8. 558.

經」, 9월부터는 「詩經」을 4년 3월 중순까지 완독하였다. 성종 3년 11월 12일에는 야대과목으로 「左氏春秋」를 읽고 싶었으나 大司諫 成俊, 領事 韓明澮, 知事 盧思愼 등은 「宋元節要」를 우선시 하였다.¹⁶⁾ 「詩經」을 완독한 성종은 자신의 뜻대로 「春秋」를 읽기 시작하여 5년 3월 초에 마치고, 곧 바로 「綱目」¹⁷⁾을 선정하여 8년(1478) 2월 까지 완독하였다. 당시 「通監綱目」은 韓明澮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다. 그의 추천내용을 보면,

領事 韓明澮 : 듣건대 「春秋」講讀을 마친 뒤에 「禮記」강하려 한다 하니 臣은 생각건대, 「禮記」는 진실로 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 「通監綱目」은 古今의 治亂이 갖추어 실려 있으므로 人主가 마땅히 먼저 강해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주강과 석강에는 「綱目」을 겸하여 講讀하게 하소서.
成宗 : 「禮記」와 「綱目」은 卷帙이 많아서 동시에 강독할 수 없다. 내가 마땅히 「綱目」을 강하겠다.¹⁸⁾

「綱目」의 독서는 5년(1474)부터 8년(1477)까지 3년에 걸쳐 완독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성종은 「綱目」한 자료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高麗史」, 「大學」 등 여러 자료를 병행하여 읽었다. 5년 9월 15일에는 「綱目」을 완독하면 「宋鑑」, 「周易」을 읽도록 정인지, 한명회, 홍윤성 등이 다음과 같이 추천하였다.

임금이 文昭殿에 나아가서 친히 望祭를 행하였다. 제사를 마치고 齋室에 나가서 종친·재상·대신을 불러서 음복하였다. 鄭麟趾가 아뢰기를, “世宗께서는 참으로 성인이십니다. 經筵에서 「綱目」 읽기를 좋아하셨는데, 하루는 慕華館에 거둥하셨다가 날이 이미 저물었으나 환궁하자 곧 경연에 나아가셨고, 이로 말미암아 「綱目」을 1백 번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진하께서는 바야흐로 「綱目」을 講하시니, 모름지기 세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綱目」을 다 읽으신 뒤에는 「宋鑑」도 강하셔야

- 15) 「增補文獻備考」에서는 성종 원년(1470)에 장령 洪貴達이 야대를 청하여 寶敬堂에서 「國朝寶鑑」을 강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야대는 성종 2년 윤 9월 23일에 掌令 洪貴達의 건의로 2일 후인 27일에 朴孝元과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 16) 「朝鮮王朝實錄」成宗 3年 11月 甲辰(12日) 卷24. 冊8. 694.
- 17) 通鑑綱目이라고도 함. 宋代에 朱熹(1130~1200)와 그의 제자 趙師淵이 司馬光의 「資治通鑑」을 토대로 그 이전의 記事를 보충하고, 중요한 사항을 綱으로 삼고 부수적인 세부항목을 目으로 삼아 만든 編年史이다.
- 18) 「朝鮮王朝實錄」成宗 5年 3月 戊子(3日) 卷40. 冊9. 94.

합니다.太宗께서는 일찍이朴崑, 柳廷顯, 李原 등에게「宋鑑」은 바로近代史이므로 읽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하고, 韓明澮는 “「宋鑑」을進講하면君子와 小人의 옳고 그름을 밝게 알 수 있습니다.”하고, 洪允成은 “「周易」은 네 성인의 글인데, 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니, 정인지가 먼저 “「綱目」을 강하여歷代의 성공과 실패의 자취를 알고, 다음에「周易」을 강하여陰陽의消長하는 이치를 아는 것이 또한 좋습니다.”하였다.¹⁹⁾

위의 건의는 경연에서가 아니라 문소전의 재실에서 한 내용으로 정인지는 세종이「綱目」을 1백번 읽었으니 본받아야 하고, 「宋鑑」도 태종께서 근대사이므로 읽어야한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주면서 간접적으로 자료를 선정해주자, 한명회도 찬성하고 있으며, 홍윤성은「綱目」다음에는「周易」을 읽어 음양의 이치를 알도록 권유하는 내용이다.

성종 6년(1475) 2월 8일 야대에서는「高麗史」를 읽었다. 2월 14일 주장에서는 경연관들과 사관이 작성하는「經筵日誌」를 비밀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²⁰⁾ 성종 6년 석강에서는「宋鑑」등을 읽었다. 「宋鑑」을 마친 후 성종 7년(1476) 10월 8일에는 석강에서「大學」을 강하면서 현석규와 경연당상이 주장에서도「大學」과「中庸或問」을 진강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또한「近思錄」도 경연자료로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 추천 내용을 보면,

都承旨 玄碩圭: 무릇 文學士는 經學에 長點이 있는 자도 있고 史學에 장점이 있는 자도 있습니다. 藝文儒士는 재주가 넉넉하지 않음은 아닙니다만, 「中庸」, 「大學」이나 性理書는 본래부터 깊은 연구가 없는 자는 顧問에 대비할 수 없으니, 마땅히 經筵堂上으로 하여금 晝講에서 進講케 하소서.

성종: 학문을 어떻게 堂上和 堂下로 나누겠는가?

同副承旨 洪貴達: 世宗朝 때에는 주로 講經으로써 人材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明經으로 專業을 삼았으며, 李克培 등은 經書에 능하였으나 그 뒤에는 製述에만 힘쓰고 經學을 힘쓰지 않았는데, 臣 등과 동일한 시기의 무리가 모두 그러합니다.

성종: 그렇다면 마땅히 晝講에 堂上으로 하여금 進講하게 할 것이니, 그 절차를 상의하여 아뢰라.

玄碩圭: 「中庸或問」과 아울러 진강하는데, 大文을 해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9) 「朝鮮王朝實錄」成宗 5年 9月 丁卯(15日) 卷47. 冊9. 146.

20) 「朝鮮王朝實錄」成宗 6年 2月 14日. 卷52. 冊9. 197.

성종: 輯釋의 긴요한 곳은 아울러 진강하라. 그리고 史學으로서 篇帙이 간략하여 진강하기에 편리한 것이 어떤 책인가?

현석규: 「近思錄」 같은 것은 祖宗께서 留意 하던 것입니다

성종: 그러한 책들을 기록하여 아뢰게 하라.²¹⁾

그러나 성종은 「大學」을 읽으면서 7년 10월 13일에 「名臣言行錄」을 진강하도록 하였다. 당시 승지들은 조강에서 「綱目」, 주강, 석강에서 「大學」을 읽고 있으므로 부담이 너무 많으니 「言行錄」은 취소하자는 건의를 했으나 성종은 「名臣言行錄」만은 석강에서 꼭 읽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²²⁾ 성종 7년(1476) 12월 22일 야대에서는 경연관들에게 주연을 베푸는 중 다음 경연에서 진강할 과목을 시독관 이명숭이 「大學衍義」를 추천하였다.

侍讀官 李命崇: 전하께서 이미 四書三經과 「宋元節要」를 읽으셨고, 이제 마야흐로 「綱目」, 「大學或問」, 「名臣言行錄」, 「高麗史」를 進講하고 있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大學」이라는 것은 천하의 국가를 다스리는 律令과 格例이며, 先儒 眞西山이 衍義한 글을 지었는데, 모두가 經史의 지극한 말이니 이는 經筵에서 요긴하고 적절한 글입니다. 빨리 진강하기를 바랍니다.

成宗: 나도 그 글을 본 적이 있다. 장차 경연에서 講하도록 하라.²³⁾

본 대화내용을 보면 성종은 집권 7년까지 四書三經과 「宋元節要」를 완독하고 「綱目」, 「大學或問」, 「名臣言行錄」, 「高麗史」 등을 동시에 강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이명숭이 추천한 「大學衍義」는 바로 강독에 들어가지 않고 성종 10년(1479) 4월부터 읽기 시작하였다. 성종은 읽고 있던 「綱目」이 거의 끝나가게 되자 성종 8년(1477) 2월 24일에 經筵知事 李克培가 「周易」을 추천하였다.

“經筵知事 李克培 등이 아뢰기를, 經筵에서 「綱目」이 이미 끝났으니, 장차 「周易」을 講讀해야 합니다. 「주역」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融會貫通한 뒤에라야

21) 「朝鮮王朝實錄」 成宗 7年 10月 戊寅(8日) 卷72. 冊9. 384.

22) 「朝鮮王朝實錄」 成宗 7年 10月 癸未(13日) 卷72. 冊9. 385.

23) 「朝鮮王朝實錄」 成宗 7年 12月 辛卯(22日) 卷74. 冊9. 402.

가히 進講할 수 있는데, 신 등은 나이가 들어서 잊었습니다. 세종조 문종조 때에는 모두 郎廳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하여 그것을 專業 하게 하고, 예종조 때에 이르러 비로소 丘從直과 鄭自英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하였으니, 지금도 또한 經筵郎廳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종조 때에 金鉤와 金末이 모두 兼集賢殿으로서 經筵官이 되었으니, 지금 張繼弛와 俞鎮, 崔自濱이 모두 「주역」에 정통하니, 세종조 때의 例에 의하여 經筵관을 겸해 제수하시고, 藝文館 儒士로 하여금 다시 서로 연구한 바를 진강하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²⁴⁾

이극배는 「周易」을 선정하면서 「周易」에 능통한 張繼弛와 俞鎮, 崔自濱을 동시에 추천하였다. 자료선정을 받은 성종은 곧 바로 「周易」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성종 8년(1477) 윤2월 16일에는 그 동안 經筵에서 수고한 經筵관들에게 廣延후에서 주연을 베풀고 상품까지 하사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었다. 당시 經筵관들에게 내린 인물과 시상내용은 領事 韓明澮와 沈澮, 曹錫文, 金碩, 尹士昕, 金國光, 盧思愼에게 段子 1필, 知事 李克培와 洪應, 同知事 徐居正, 任元濬, 李承召에게 비단(羅) 1필, 參贊官 玄碩圭와 李克基, 任士洪, 韓儼, 孫舜孝, 洪貴達, 孫比長에게 사(紗) 1필, 侍講官 盧公弼과 崔自漢, 李孟賢, 俞鎮, 柳洵, 崔淑精, 侍讀官 柳子漢, 丘達孫, 金訢, 檢討官 李祐甫, 鄭淮, 鄭摯, 成聘年, 尹喜孫, 趙文淑에게 虎皮 1장 司經 柳麟童, 崔乙斗, 說經 梁舜卿, 蘇斯軾, 典經 徐彭召, 閔孝曾, 崔璡, 注書 奇攢, 金諶에게 鹿皮 1장 등이었다.²⁵⁾ 이와 같이 성종은 經筵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후한 대접을 하면서 독서영역을 넓혀 갔던 것이다. 그의 독서는 한 과목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었다. 「綱目」을 읽으면서 「周易」도 병행해서 읽어나갔으며, 읽는 도중에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과 토론을 병행하였다. 성종 8년(1477) 11월 4일에 「綱目」의 내용 중 憲宗이 李絳과 더불어 朋黨을 論한 대목에서 성종은 ‘朋黨은 심히 나쁜 것이다.’하니 左副承旨 孫比長이 ‘君子와 小人이 서로 용납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얼음과 솥을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君子는 군자끼리 범을 삼고 小人은 소인끼리 벗을 삼는다.’는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²⁶⁾

24) 「朝鮮王朝實錄」成宗 8年 2月 癸巳(24日) 卷76, 冊9, 423.

25) 「朝鮮王朝實錄」成宗 8年 윤2月 甲寅(16日) 卷77, 冊9, 430.

26) 「朝鮮王朝實錄」成宗 8年 11月 丁卯 (4日) 卷86, 冊9, 524.

그는 밤낮으로 「綱目」을 읽으면서 9년(1478) 1월 4일에는 석강에서 이극배가 추천한 俞鎭과 崔自濱에게 「易學啓蒙」을 윤번으로 진강하도록 하였으며,²⁷⁾ 9년 5월 4일에는 석강에서 「綱目續編」²⁸⁾을, 9년 8월부터 주강에서 「禮記」를 읽고, 10년 3월 28일 석강에서 다시 「論語」〈述而篇〉에 들어갔으며, 10년(1479) 4월부터 10월까지 「大學衍義」를 강독하였다. 「大學衍義」를 읽는 도중에도 주강에서 4월 22일, 동 10월 20일에는 「左傳」을 읽고 경연관들과 토론하기도 하였다. 동 윤10월 7일부터는 「國語」, 11년(1480)까지는 「綱目」속편을 완독하고, 12년(1481)부터는 「資治通鑑」²⁹⁾을 읽기 시작하였다. 동년 10월 20일에는 領事 李克培와 知事 姜希孟이 「性理大全」의 「皇極經世書」와 「律呂新書」는 그 깊은 뜻과 미묘한 취지를 사람마다 理解할 수 없으니, 弘文館의 관원 중 英敏한 자를 택하여 預習하여 進講하도록 건의하자 성종이 승낙하였다.³⁰⁾ 그러나 성종은 이들이 추천한 책을 받아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경연에서 정한 자료 외에도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경연관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노력한 일도 있다. 예를 들면 성종 14년(1483) 1월 18일부터 27일 까지 三子의 독서문제에 대한 경연관들과의 논란이다. 그 논의 내용은,

(1월 18일)성종이 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지금 「近思錄」과 「前漢書」를 보고 있다. 그러나 聖經賢傳만 알고 諸子의 글을 알지 못하면 善惡을 분별할 수 없으니 「近思錄」·「前漢書」를 다 본 뒤에 「莊子」·「老子」·「列子」등 三子의 글을 읽고자 하는데, 卿 등의 뜻은 어떠한가?³¹⁾

27) 「朝鮮王朝實錄」成宗 9年 1月 丁卯(4日) 卷38, 冊9, 541.

28) 「通鑑續編」이라고도 하며, 총 24권으로 권1은 盤古氏부터 高辛氏까지, 권2는 唐 및 5代 권3~24는 宋代 祥興 2年(1279)까지 역대왕조의 事蹟을 수록한 역사책이다. 조선 세종 4년(1422)에 간행된 庚子字本이 국보283호로 지정되었다.

29) 資治通鑑은 北宋의 司馬光(1019~86)이 저술한 편년사로 처음에는 전국시대에서 秦 나라 二世皇帝까지의 <通志> 8권을 지어 英宗에게 바쳤으며, 그후 계속해서 편찬하여 1084년(元豐 7)에 완성하였다. 총 294권이며, 부록으로 考異·目錄이 각 30권씩이다. 전국시대 周나라 威烈王 때(BC 403)부터 五代 周나라 世宗 때(959)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30) 「朝鮮王朝實錄」成宗 11年 10月 丙寅(20日) 卷122, 冊10, 169.

31) 「朝鮮王朝實錄」成宗 14年 1月 辛亥(18日) 卷150, 冊10, 428.

(1월 19일)성종완 전하께서 「莊子」 등의 글을 강독하여 그 그릇됨을 보고자 하셨는데, 신 등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만 祖宗朝로부터 經筵에서 이 글을 강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夜對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곳을 질문하시는 것은 좋겠지만 經筵官이 進講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만약 이 글을 보는 것을 잘못이라고 한다면 經書 가운데 「莊子」를 인용한 곳이 한 군데가 아닌데, 그것을 모두 없애버린 뒤에야 진강할 것인가?³²⁾

(1월 20일)성종: 三子를 강독하고자 하는 물음에 어찌하여 대답하지 아니하는가? 도승지 李世佐: 신 등은 생각건대, 임금의 마땅히 聖賢의 글을 보고 古今의 다스려지고 어지러웠던 자취를 상고할 뿐이며, 「莊子」, 「老子」, 「列子」는 바로 異端의 글인데 經筵에서 進講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여깁니다.

弘文館博士 李瑒: (本館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莊子」, 「老子」, 「列子」는 이단의 글이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종: 聖賢의 글을 읽고서 그 옳은 것을 알고 이단의 글을 읽고서 그 그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아니한가?

이거: 「孔子가 말하기를, 이단을 전공하면 해롭다.」 하였는데, 그것을 해석한 이가 말하기를, 「점점 젖어서 그 속으로 들어간다.」 하였으니, 하필 이단의 글을 널리 본 뒤에야 그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겠습니까?

성종: 하고 아니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처리하겠다. 三子에 능통한 자를 기록하여 아뢰라.³³⁾

(1월 27일) 성종이 右承旨 姜子平에게, 「莊子」·「老子」·「列子」 三子의 글을 안다는 사람을 그대가 4, 5인만 써서 아뢰었고, 또 말하기를, 「읽을 때에 다만 글을 짓기 위하여 대강 보았을 뿐이며 자세하게 아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만일 글 뜻을 알지 못하면 글을 짓는 데 쓸 수가 있겠는가? 내가 異端의 글을 보는 것이 비록 잘못이라고 하지만, 임금을 속인 죄도 크다. 이단의 그른 것을 알면 聖道가 높여 뛰어남 것을 또한 볼 수 있다. 그대가 內臣으로서 이 같은 말을 아뢰어 임금을 속이는 것이 옳겠는가? 지금부터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³⁴⁾

이와 같이 성종은 폭넓은 독서, 다양한 독서를 원했다. 문신들이 이단의 책이라 하여 멀리한 삼자의 책을 읽고 싶었던 것이다. 어떤 사유로 독서를 금하고 있는지 성종이 직접 읽고 良書인지 惡書인지를 판단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문신들이 금서로 결정하고 임금에게 추천을 꺼려했을지 모르지만 성종의 독서 자세는 올바른 처사였다고 본다. 그 후 三子 讀書에 대한 여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다음 날인 14년 1월 27일 「資治通鑑」

32) 「朝鮮王朝實錄」成宗 14年 1月 壬子(19日) 卷150. 冊10. 428.

33) 「朝鮮王朝實錄」成宗 14年 1月 癸丑(20日) 卷150. 冊10. 428.

34) 「朝鮮王朝實錄」成宗 14年 1月 庚申(27日) 卷150. 冊10. 430.

을 강독하고 동년 10월 29일 주장에는 「近思錄」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도학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 밖에도 독서자료 선정문제로 성종은 경연관들과 의견대립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년 12월 8일에는 성종이 주장에서 「戰國策」을 읽고 싶어 했으나 시강관李世佑가 네 차례에 걸쳐 역사책을 읽는 것은 옳지 못하니 경학을 읽도록 권유하였으며, 領事 洪應도 성리학 서적을 추천하였다. 이들의 독서자료 선정에 대한 토론 내용을 보면,

侍講官 李世佑: 이제 畫講에서 장차 「戰國策」을 강하려고 하시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네 차례의 경연에 모두 諸史로써 하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청컨대 經學을 강독하도록 하소서.

성종: 임금이 좌우에게 묻다.

領事 洪應: 정치를 하는 道는 실로 經學에 근원하였으니, 경학을 근본으로 삼고 諸子와 歷史를 참고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學問으로써 나의 지식을 넓게 하고 禮로써 나의 행실을 단속한다. 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諸史로써 지식을 넓힐지라도 性理學으로써 단속하면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에 거의 보탬이 있을 듯합니다.

성종: 그러면 마땅히 「尙書」를 읽을 것이다.

홍응: 「상서」는 정치를 하는 律令으로서 君臣이 서로 경계하는 말로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³⁵⁾

그 후 주장에서는 「尙書」를 읽고 경연에서는 「資治通鑑」을 계속해서 읽었다. 15년 5월 12일에는 「尙書」의 원 뜻을 규명하고자 金應箕와 「律呂新書」를 참고한 뒤 「尙書」의 <律呂 隔八相生法>을 강독하였다.³⁶⁾

동년 6월 19일에 시강관 조위와 「資治通鑑」唐紀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였으며, 동년 10월 9일에는 성종이 「文翰類選」과 「三國史」등의 내용을 알고 싶어 경연자료로 선정할 것을 승지들과 의논하였다.

성종: 이제 「文翰類選」을 보니, 이해하지 못할 곳이 많이 있다. 先儒가 말하기를 임금이 詞章을 지나치게 좋아해서는 아니 되지만, 또한 알지 아니할 수 없다. 고 하였고, 또 「詩經」의 國風은 음란한 詩인데 선유가 혹은 進講할 수 없다고 말하고

35) 「朝鮮王朝實錄」成宗 14年 12月 丁卯(8日) 卷161. 冊10. 549.

36) 「朝鮮王朝實錄」成宗 15年 5月 戊戌(12日) 卷166. 冊10. 590.

혹은 진강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또 「三國史」도 역시 怪誕한 말이 많다. 그러나 夜對에서 역시 진강한다. 내가 「문한유선」에서 小詩, 四韻 같은 것을 제외하고 「삼국사」를 진강한 뒤에 아울러 강독하고자 하는데, 승정원의 뜻은 어떠한가?

承旨들: 비록 夜對라고 하더라도 詞章을 진강하는 것은 적당치 못할까 합니다.

左承旨 權健: 예전 太宗께서 「杜詩」를 진강하고자 하시니 「杜詩」는 詩史로서 모두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말이지만, 신의 祖父 權近이 오히려 진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이 「문한유선」이겠습니까?

성종: 태종께서 「杜詩」를 보고자 하신 것은 임금이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을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先儒가 말하기를,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는 마땅히 알지 못함이 없어야 한다. 고 하였으니 내가 詞章에 好着 함이 아니라, 아는 데 그치고자 할 뿐이다. 이제 승지들이 진강할 수 없다고 하니, 예전에 國風을 진강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승지들: 국풍을 진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것이 王安石의 失言입니다. 국풍은 聖經인지라 비록 음란한 글이 실렸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로 인하여 경계할 수 있으니, 임금이 알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한유선」 같은 것은 바로 詞藻를 편집한 것인데, 어찌 감히 국풍에 비하겠습니까? 經筵官으로 하여금 진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종: 경들의 말이 옳다.³⁷⁾

성종은 임금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무엇이든지 알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文翰類選」을 읽고 싶어 승지들과 상의했지만 승지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16년 4월 12일에 주강에서 「尙書」를, 동 10월 27일에는 석강에서 「前漢書」를 강독하였으며, 다시 동 11월 4일 부터는 「資治通鑑」을 강독하였다. 성종 18년 3월 12일에는 「資治通鑑」강독이 거의 끝나자 성종은 「元史」를 읽고 싶어 했다. 그러나 持平 鄭錫堅, 獻納 金浩 등이 옛날의 일을 읽어서 치란을 경계로 삼는 것은 좋지만 경서를 읽는 것만 못하다하므로 「中庸」, 「大學」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성종은 차라리 「論語」를 읽겠다고 하였다.³⁸⁾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흐른 시점이다. 여러 번 경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어왔으므로 경서를 탈피한 다른 책을 읽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資治通鑑」이 끝나갈 무렵 「元史」를 읽고 싶다고 하였는데 경연관들은 그 요구까지 들어주지 않고 경서를 권한 것이다. 이를 후인 성종 18년(1487) 3월 14일에 「資治通鑑」을 완독하고

37) 「朝鮮王朝實錄」成宗 15年 10月 癸亥(9日) 卷171. 冊10. 630.

38) 「朝鮮王朝實錄」成宗 18年 3月 壬子(12日) 卷201. 冊11. 196.

승정원에 전교를 내려 “『資治通鑑』은 編帙 이 많으나 3년 배울 것에 불과한데 나는 국휼을 당하고 혹은 사고로 인하여 오늘에야 끝냈다. 명일은 경연관에게 대접하라.”고 하였다.³⁹⁾

그는 「綱目」을 5년(1474)부터 시작하여 8년까지 읽고 11년 「강목속편」, 12년부터 「資治通鑑」을 18년(1487)까지 완독하였으니 「綱目」, 「綱目續編」, 「資治通鑑」에만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이다. 18년 3월 12일에 선정된 「論語」는 8월 16일까지 계속해서 강독하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토론에 참여한 경연관은 侍讀官 李承健, 同知事 李瓊全, 特進官 許琮 등이었다. 성종 20년(1489) 3월 10일부터는 「性理大全」을 강독하기 시작하여 22년(1491) 12월까지 완독하였으며, 참여한 경연관은 侍講官 金應箕, 侍讀官 鄭光世, 領事 洪應, 特進官 孫舜孝, 侍講官 表沿洙 등이었다. 23년(1492) 1월에는 「中庸」, 11월에는 「孟子」, 24년에는 다시 「論語」를 강독하고 「論語」를 강독하면서 25년(1494) 2월 2일 성종은 「正韻」을 경연에서 읽도록 준비하라고 하였다. 전교를 받은 승정원에서는 李昌臣을 추천하였다. 성종은 “내가 「正韻」의 서문을 보니 해독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이창신, 李琚에게 「正韻」의 음석과 범례를 상고하여 후일 경연에서 진강토록 하라.”고 하였다.⁴⁰⁾ 그러나 「正韻」을 경연에서 강독했다는 기록이 없다. 그 후 「論語」를 완독하고 성종 25년(1494) 8월 21일 侍讀官 權瑠 등과 아침에 「尙書」의 서문을 읽었다. 그리고 5일 후인 26일에 성종은 “『大學衍義』는 帙이 많고 뜻이 좋아 임금으로서 마땅히 보아야 할 책이므로 夜對에서 이를 강론케 하였는데, 단지 야대는 강하기도 하고, 강하지 않을 때도 있어서 매우 間斷하니, 이 책을 夕講에서 進講하도록 하라.”⁴¹⁾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25년(1494) 12월 24일 대조전에서 3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39) 「朝鮮王朝實錄」成宗 18年 3月 甲寅(14日) 卷201. 冊11. 196.

傳于承政院曰, 資治通鑑, 簡帙雖多, 不過三年之學 予則值國恤 或因事故 至於今日乃畢, 明日, 其饋經筵官.

40) 「朝鮮王朝實錄」成宗 25年 2月 辛酉(2日) 卷287. 冊12. 471.

承政院承 教, 書知正韻者李昌臣等啓, 傳曰, 予觀韻會序, 多有難解處, 使李昌新李琚, 攷正韻音釋凡例, 於後日經筵 進講

41) 「朝鮮王朝實錄」成宗 25年 8月 壬午(26日) 卷283. 冊12. 57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종이 집권 25년 동안 경연에서 읽고 토론한 책은 「論語」, 「孟子」, 「中庸」, 「國朝寶鑑」, 「書經」, 「詩經」, 「春秋」<左氏傳>, 「易學啓蒙」, 「綱目」, 「綱目續編」, 「資治通鑑」, 「高麗史」, 「宋鑑」, 「名臣言行錄」, 「大學衍義」, 「周易」, 「禮記」, 「國語」, 「貞觀政要」, 「吏文謄錄」, 「前漢書」, 「近思錄」, 「家語」, 「晉書」, 「性理大全」, 「文獻通考」, 「史記」 등 27 종이다(부록참조) 이 밖에 성종이 읽고 싶었지만 경연관들의 반대로 읽지 못한 책은 「莊子」, 「老子」, 「列子」, 「戰國策」, 「文翰類選」, 「三國史」 등이다. 앞의 27종의 책을 선정하여 토론에 참여한 인물들은 영사 韓明澮, 申叔舟, 沈澮, 曹錫文, 金碩, 尹士昕, 金國光, 尹子雲, 盧思愼, 鄭昌孫, 洪應, 尹弼商 등이며, 知事는 鄭自英, 李克培, 洪應, 丘從直, 孫舜孝, 盧思愼, 姜希孟, 李克增, 洪貴達, 朴叔蓁, 金升卿, 徐居正 등, 同知事로는 徐居正, 任元濬, 李承召, 玄碩圭, 李克培, 鄭自英, 鄭孝常, 李克基, 李坡, 李瓊全, 鄭恬, 蔡壽, 朴安性 등, 참찬관은 玄碩圭, 李克基, 任士洪, 鄭微, 韓僔, 孫舜孝, 洪貴達, 孫比長, 金之慶, 俞鎮, 成倪, 金宗直, 安琛 등, 시강관은 盧公弼, 崔自漢, 李孟賢, 俞鎮, 柳洵, 崔淑精, 金季昌, 朴始亨, 金永堅, 李亨元, 李祐補, 成倅, 李命崇, 李孟賢, 權健, 金宗直, 曹偉, 鄭誠謹, 金訢, 表沿末, 金應箕, 權瑠, 宋軼 등, 시독관은 柳子漢, 丘達孫, 金訢, 金紐, 安琛, 成聃年, 李世匡, 李昌臣, 鄭誠謹, 成健, 宋軼, 趙之瑞, 閔師騫, 李均, 李達善, 俞好仁, 權瑠, 鄭光世, 閔輔翼 등, 검서관은 李祐甫, 鄭淮, 鄭摯, 成聃年, 尹喜孫, 趙文琚, 李昌臣, 鄭誠謹, 曹偉, 宋軼, 黃啓沃, 權五福, 姜渾 등, 사경은 柳麟童, 崔乙斗, 閔師騫, 설경은 梁舜卿, 蘇斯軾, 진경은 徐彭召, 閔孝曾, 崔璉, 安潤孫 등이다. 기타 注書로는 奇橫, 金諶, 특진관 61 명⁴²⁾, 記事官은 李瑞, 그 밖에 사간으로 참여한 인물은

42) 특진관제도는 성종 17년(1486)부터 1, 2품 중에서 선발하였다. 이들은 2명씩 경연에 참석하여 講讀이 끝난 후 주로 왕과 정사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당시 특진관으로는 李克均, 金謙光, 金升卿, 金自貞, 李德良, 朴安性, 柳輕, 愼承善, 李季全, 鄭蘭宗, 李克敬, 李淑琦, 孫舜孝, 許琮, 鄭文燭, 李鐵堅, 李世佐, 柳子光, 申浚, 辛鑄, 洪利老, 朴星孫, 李仁亨, 金梲, 盧公弼, 李約東, 鄭恬, 成倅, 金宗直, 宋瑛, 尹孝孫, 蔡壽, 成健, 朴崇質, 李有仁, 權挺, 金伯謙, 尹末孫, 金世勳, 尹殷老, 林壽昌, 李則, 成倅, 尹殷老, 柳洵, 李秉正, 成倪, 韓致禮, 李鐵堅, 安處良, 李陸, 趙益貞, 韓僔, 金伯謙, 李封, 呂自新, 李克增, 尹喜孫, 鄭崇祖, 洪興, 金克儉, 朴槿 등이다.

朴崇質, 成倪, 李世弼, 韓堰, 金首孫, 安彭命, 洪洞, 장령 李誼, 李琚, 李仁錫, 집의 姜居孝, 李德崇, 正言 尹碩輔 등으로 총 200여명(승급자 포함) 이상이 성종의 독서토론에 참여하였다.

4. 讀書回數 및 讀書沮害要因

4.1 朝講

조강은 아침에 경연관들과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보편적으로 조강을 경연이라고도 하지만 단종 때 3강으로 나누어 실시된 것이 선례가 되어 성종도 어린 나이에 등극한 관계로 3강과 야대까지 실시하였다. 조강은 주로 성년이 되기까지는 교육위주로 실시되었으며, 조강에서 선정된 책으로 공부한 후 주강, 석강, 야대에서는 복습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성종은 나이가 들면서 강별로 책을 선정하여 읽으면서 토론을 병행하였다. 성종이 집권 25년 동안 조강을 실시한 회수는 총 3,774회이다. 연도별로 조강회수를 보면, 1년 243회, 2년 254, 3년 250회, 4년 237회, 5년 262회, 6년 241회, 7년 225회, 8년 230회, 9년 171회, 10년 202회, 11년 171회, 12년 166회, 13년 158회, 14년 77회, 15년 57회, 16년 94회, 17년 109회, 18년 90회, 19년 80회, 20년 55회, 21년 110회, 22년 98회, 23년 97회, 24년 64회, 25년 33회 등이다. 1년부터 7년(1476)까지는 거의 매일 책과 함께 살았음을 볼 수 있다.

<표 3> 朝講 回數

年度\月	1	2(㉔)	3	4	5	6	7	8	9(㉔)	10(㉔)	11	12	計	累計
1	24	21	25	19	16	24	19	24	18	13	20	20	243	243
2	23	13	13	20	17	24	26	22	15(24)	16	20	21	254	497
3	17	18	22	25	20	25	19	24	21	20	20	19	250	747
4	24	23	23	18	19	24	21	21	13	14	15	22	237	984
5	25	24	23	23	18	22	22	24	14	22	24	21	262	1246
6	17	19	18	23	20	22	23	24	9	23	21	22	241	1487
7	21	14	16	24	15	26	22	20	20	21	11	15	225	1712
8	26	16(26)	18	21	2	13	18	17	14	19	20	20	230	1942
9	19	16	13	11	14	12	11	19	6	15	17	18	171	2113
10	18	16	14	12	14	17	17	12	14	10(19)	23	16	202	2315
11	18	13	15	18	14	14	13	13	15	18	9	11	171	2486
12	20	15	11	23	10	12	1	9	13	19	20	13	166	2652
13	16	14	13	14	11	13	0	18(9)	10	12	15	13	158	2810
14	14	10	17	0	0	0	0	9	7	8	6	6	77	2887
15	1	0	0	6	9	5	2	9	8	7	8	2	57	2944
16	1	1	0	8(10)	2	0	0	19	10	15	17	11	94	3038
17	15	14	12	11	12	2	0	8	2	10	12	11	109	3147
18	8	13	11	11	3	0	0	14	3	7	6	14	90	3237
19	17(9)	8	4	6	12	0	0	12	2	3	4	3	80	3317
20	0	4	11	7	6	0	0	5	0	7	10	5	55	3372
21	16	17	12	17	16	0	0	6	4(5)	5	10	2	110	3482
22	3	8	12	6	14	0	0	6	6	14	14	15	98	3580
23	20	11	13	11	4	0	0	3	5	6	17	7	97	3677
24	6	1	7	8	6(8)	0	0	0	0	16	8	4	64	3741
25	8	8	4	3	9	0	0	1	0	0	0	0	33	3774
총회수	386	343	327	355	291	255	214	348	258	339	347	311		3774

4.2 晝講

주강은 낮에 하는 독서로 조강에 익혔던 부분을 복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낮에는 국정의 일로 등한시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강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의 주장 회수를 보면, 1년 230회, 2년 221회, 3년 235회, 4년 219회, 5년 204회, 6년 218회, 7년 144회, 8년 22회, 9년 22회, 10년 23회, 11년 82회, 12년 10회(대왕대비 승하), 13년 53회, 14년 32회, 15년 26회, 16년 60회, 17년 74회, 18년 73회, 19년 36회, 20년 47회, 21년 80회, 22년 70회, 23년 71회, 24년

47회, 25년 25회로 총 2,324회 이상을 주강에 참여하였다. <표 4>를 보면 성종 7년(1476)까지는 열심히 독서한 흔적이 보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수치가 10 단위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집권 7년까지는 대왕대비의 수렴청정 하에서 경연관들과 독서토론이라기 보다는 교육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서회수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후부터는 성종이 성년이 되고부터 스스로 왕권을 행사하면서 독서할 수 있는 여가를 내지 못하고, 의욕 또한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書講回數

年度 月	1	2(윤)	3	4	5	6	7	8	9(윤)	10(月)	11	12	計	累計
1	24	20	25	18	15	18	20	24	16	13	19	18	230	230
2	17	12	5	15	16	22	26	22	14(21)	15	18	18	221	451
3	16	17	20	24	20	25	20	23	15	19	17	19	235	686
4	24	22	22	18	19	22	19	19	10	12	13	19	219	905
5	25	22	24	10	10	7(1)	6	20	15	22	22	20	204	1109
6	14	16	18	19	20	21	20	23	9	21	20	17	218	1327
7	20	11	15	20	15	8	5	13	9	11	10	7	144	1471
8	2	2(1)	1	5	0	2	2	2	1	1	0	3	22	1493
9	3	1	1	4	5	0	0	4	0	0	3	1	22	1515
10	2	1	1	4	1	0	0	4	1	1(3)	3	2	23	1538
11	6	10	10	12	4	0	2	6	10	10	5	7	82	1620
12	0	0	2	1	1	0	0	3	1	0	2	0	10	1630
13	3	9	6	6	0	0	0	(6)	3	10	6	4	53	1683
14	2	1	10	0	0	0	0	1	6	6	2	4	32	1715
15	1	0	0	6	7	0	0	0	6	2	3	1	26	1741
16	2	1	0	6(8)	0	0	0	8	7	10	11	7	60	1801
17	10	9	8	9	7	1	0	7	2	6	7	8	74	1875
18	6	12	7	9	2	0	0	11	3	5	6	12	73	1948
19	1(6)	5	0	5	1	0	0	8	1	3	3	3	36	1984
20	0	4	11	5	5	0	0	4	0	6	8	4	47	2031
21	7	14	7	16	10	0	0	6	4(3)	4	8	1	80	2111
22	3	8	7	3	10	0	0	5	5	8	11	10	70	2181
23	16	8	9	6	4	3	0	2	4	4	11	4	71	2252
24	5	1	4	5	5(2)	0	0	1	0	14	7	3	47	2299
25	8	3	3	4	5	0	0	1	0	0	1	0	25	2324
총회수	223	210	216	238	184	130	120	223	166	206	216	192		2324

4.3 夕講

석강은 저녁에 독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저녁에 경연관들이 교대로 숙직하면서 선정된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과정이다. 초기에는 조강과 주장만 실시하였는데 1년 2월 14일에 司諫 金壽寧의 상소를 올리자⁴³⁾ 이틀 후인 16일에 대왕대비가 지금 해가 점점 길어지니 主上이 夕講에 나아갈 만하다고 권하였다.⁴⁴⁾ 따라서 성종은 그 해 1월 20일부터 석강에 나아가 승지 1명과 경연관 2명, 사관 1명이 참석하여 「論語」 <學而篇>부터 2일에 授業한 것을 한 번 소리 내어 읽고, 문장을 해석한 것이 처음 석강이었다.⁴⁵⁾ 그 후부터 석강은 계속되었는데 연도별로 밝혀보면, 1년 192회, 2년 221회, 3년 236회, 4년 214회, 5년 240회, 6년 214회, 7년 141회, 8년 36회, 9년 21회, 10년 17회, 11년 38회, 12년 6회(대왕대비 승하), 13년 37회, 14년 11회, 15년 6회, 16년 57회, 17년 71회, 18년 66회, 19년 27회, 20년 43회, 21년 70회, 22년 59회, 23년 60회, 24년 40회, 25년 19회로 총 2142회로 나타났다. 역시 주장에서와 같이 8년부터 독서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夕講回数

年度 \ 月	1	2 (윤)	3	4	5	6	7	8	9 (윤)	10 (윤)	11	12	計	累計
1	0	10	23	16	15	17	20	23	17	13	19	19	192	192
2	17	11	5	14	16	22	26	22	14(21)	16	18	19	221	413
3	17	17	20	24	20	25	19	24	15	19	17	19	236	649
4	24	22	21	18	19	22	18	17	9	12	13	19	214	863
5	25	22	23	9	10	15(20)	14	21	15	22	23	21	240	1103
6	12	17	17	18	20	22	19	23	9	21	18	18	214	1317
7	19	9	15	23	14	8	5	13	7	11	9	8	141	1458
8	3	2(5)	2	3	0	2	5	1	1	1	4	7	36	1494
9	2	0	2	1	3	1	0	5	0	1	6	0	21	1515

43)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2月 癸亥(14日) 卷3. 冊8. 465.

44)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2月 乙丑(16日) 卷3. 冊8. 466.

45)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2月 己巳(20日) 卷3. 冊8. 467.

10	3	4	3	2	2	1	0	1	0	1	0	0	17	1532
11	0	0	0	6	3	0	2	4	7	9	5	2	38	1570
12	0	0	0	0	0	0	0	0	3	2	0	1	6	1576
13	4	8	6	3				(5)	3	6	2	0	37	1613
14	0	0	7	0	0	0	0	1	1	1	1	0	11	1624
15	0	0	0	2	0	0	0	0	2	0	1	1	6	1630
16	0	1	0	7(9)	0	0	0	8	5	10	10	7	57	1687
17	9	9	8	9	7	1	0	6	2	6	7	7	71	1758
18	5	9	6	8	2	0	0	9	3	5	6	13	66	1824
19	(3)	2	0	4	1	0	0	7	1	3	3	3	27	1851
20	0	3	10	5	5	0	0	4	0	6	7	3	43	1894
21	6	11	6	14	10	0	0	4	3(3)	4	8	1	70	1964
22	3	6	6	3	7	0	0	4	4	7	10	9	59	2023
23	13	7	9	6	3	0	0	2	4	3	9	4	60	2083
24	3	1	4	4	4(2)	0	0	0	0	13	6	3	40	2123
25	7	3	2	2	4	0	0	1	0	0	0	0	19	2142
총회수	175	179	195	210	167	156	128	205	149	192	202	184		2142

4.4 夜對

야대는 밤에 경연관을 불러 책을 읽고 토론한 자리를 말한다. 성종이 3강만 실시하고 야대는 실시하지 않자 성종 2년 윤9월 25일에 掌令 洪貴達이 경연에서 야대실시를 건의한데서 비롯되었다.⁴⁶⁾ 그로부터 2일 후 27일에는 朴孝元과 28일에는 侍讀官 鄭徽, 檢討官 蔡壽가 「國朝寶鑑」을 읽고 해석을 한 번씩 하도록 한 뒤 술을 내려 준 것이 첫 야대였다.⁴⁷⁾ 그 이후부터 야대는 간간히 실시되었으나 3강과 같이 열정적이지는 못했다. 그가 실시한 야대를 연도별로 본 결과 1년 0회, 2년 48회, 3년 73회, 4년 77회, 5년 100회, 6년 94회, 7년 27회, 8년 14회, 9년 3회, 10년 4회, 11년 5회, 12년 1회, 13년 12회, 14년 3회, 15년 2회, 16년 12회, 17년 6회, 18년 2회, 19년 1회, 20년 3회, 21년 2회, 22년 4회, 23년 9회, 24년 5회, 25년 1회로 총 508회로 나타났다.

46) 「朝鮮王朝實錄」成宗 2年 閏9月 甲子(25日) 卷12. 冊8. 603.

47) 「朝鮮王朝實錄」成宗 2年 閏9月 丁卯(28日) 卷12. 冊8. 603.

<표 6> 夜對回數

年度 \ 月	1	2 (윤)	3	4	5	6	7	8	9 (윤)	10 (윤)	11	12	計	累計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1)	16	13	18	48	48
3	15	15	14	12	3	7	0	0	0	0	6	1	73	121
4	10	9	11	10	11	1	1	4	4	6	6	4	77	198
5	13	11	9	1	0	0	0	3	13	20	17	13	100	298
6	0	9	8	9	5	6	9	12	4	14	9	9	94	392
7	0	0	1	1	2	0	5	7	3	3	1	4	27	419
8	2	(3)	2	0	0	0	0	0	1	0	3	3	14	433
9	1	0	1	0	0	0	1	0	0	0	0	0	3	436
10	1	0	1	0	0	1	0	0	0	0	1	0	4	440
11	2	2	0	0	0	0	0	0	0	1	0	0	5	445
12	0	0	0	0	0	0	0	0	0	0	0	1	1	446
13	0	1	1	2	0	0	0	(3)	1	0	3	1	12	458
14	0	0	0	0	0	0	0	1	2	0	0	0	3	461
15	0	0	0	0	0	0	0	0	1	1	0	0	2	463
16	0	0	0	3	0	0	0	4	2	2	1	0	12	475
17	0	2	0	1	0	0	0	2	0	1	0	0	6	481
18	0	1	0	0	0	0	0	1	0	0	0	0	2	483
19	(1)	0	0	0	0	0	0	0	0	0	0	0	1	484
20	0	0	0	0	0	0	0	0	0	2	1	0	3	487
21	0	0	0	0	0	0	0	0	0	0	1	0	2	489
22	0	0	0	0	0	0	0	1	1	0	1	1	4	493
23	1	0	2	0	0	0	0	0	0	2	4	0	9	502
24	0	0	1	0	0	0	0	0	0	4	0	0	5	507
25	0	0	0	0	0	0	0	1	0	0	0	0	1	508
총회수	46	53	51	38	21	15	16	39	33	74	67	55		508

<표 6>에서 보듯이 성종 4년부터 6년까지는 가장 많은 회수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부터 밤에는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역대 제왕 중 성종이 경연에서의 독서나 독서토론회수가 가장 많다. 필자의 조사 결과 조강에서 3,774회, 주장에서 2,324회, 석강에서 2,142회, 야대에서 508회로 나타났다. 1년부터 7년(1476)까지는 거의 매일 책과 함께 살았음을 볼 수 있으나 성종 8년(1477) 성년이 되어 스스로 왕권을 행사하면서부터는 독서의 횟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성종 8(1477)~10년(1479)에는

조강의 회수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주장, 석강, 야대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성종은 집권 중반기까지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대단하였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서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지식을 쌓아갔다. 제사를 지내면 선왕들은 경연을 정지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성종은 致齋외에는 중단한 적이 거의 없다. 성종 1년 2월 6일 조회에 領事 韓明澮와 崔恒이 제사지낸 뒤에 경연에 나가면 피로가 겹치게 되니 경연을 중지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성종은 ‘내가 하루라도 배우지 못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致齋하는 날에는 할 수 없지만 行祭하는 날에는 정지할 수 없다.’⁴⁸⁾ 하면서 경연을 중지하지 않았다. 그 해 여름철에도 김질이 날씨가 무더우니 낮에 하는 강독(주강)을 정지하고 석강에는 편복을 입고 강독하자고 했으나 성종은 ‘춥음을 아끼는데 어찌 주강을 정지할 수 있으며, 편복으로 신하들을 접견할 수 있겠는가.’하고 듣지 않았을 정도로⁴⁹⁾ 예의는 물론 독서의욕이 대단히 높았다. 또한 「燃藜室記述」에서도 “시기가 곧 혹독한 더위이므로 하루에 3회씩 경연에 나가시니 상체가 피로할까 염려되니 주강은 정지하시고 조강과 석강에만 편전으로 나가시기를 청하였다.”⁵⁰⁾ 그래도 계속해서 책 읽는 것을 정지하지 않자 대비가 성종을 보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성종은 독서를 좋아하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기도 한 내용⁵¹⁾ 그가 독서에 흥미를 느낀 한 부분이기도 하다. 책을 읽어도 하루에 한 종씩 읽은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 종씩 읽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조강에 읽었던 책을 주장, 석강에서 복습형식으로 진행했으나 다른 책과 병행하면서 읽었다. 그것을 지켜본 원상이나 승지들은 經筵에서 講하는 것이 너무 많으므로, 晝講할 때에 并講하는 前二授 같은 것은 上體를 피로해질까 두려우니 전이수의 講讀을 정지하라고 건의했으나 성종은 무슨 수고로움이 있겠는가? 라면서 두 종의 책을 함께 읽었다.⁵²⁾

48)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2月 乙卯(6日) 卷3. 冊B. 463.

49) 「朝鮮王朝實錄」成宗 1年 6月 壬子(5日) 卷6. 冊B. 506.

50) 燃藜室記述 卷6. “時方酷熱, 一日三御經筵, 恐勞上體, 請停晝講, 且夕講可於便殿.”

51) 朝野僉載 卷10. “大妃見上讀書不輟, 謂上曰, 得無勞乎. 上曰, 心自好之, 不知勞也.”

52) 「朝鮮王朝實錄」成宗 2年 11月 辛酉(23日) 卷3. 冊B. 613.

<표 7> 經筵에서의 讀書停止 日程

停止期間	停止事由	出處(成宗實錄)
1年 2月 3日- 5日	제궁발인	1年 2月 壬子(3日), 권3, 8집 p.463.
10月 15日-17日	추위	1年 10月 己未(15), 권8, 8집 p.536.
8年 5月 11日-6月 15日	질병	8年 5月 丁丑(11), 권80, 9집 p.457.
14年 4月 1日-8月 12日	대왕대비승하	14年 4月 癸亥(1), 권153, 10집 p.445.
14年 7月 1日-8月 14日	무더위	14年 7月 辛卯(1), 권156, 10집 p.476.
16年 1月 21日	임질	16年 1月 甲辰(21), 권174, 10집 p.674.
17年 6月 4日-7月 30日	더위	17年 6月 丁丑(4), 권192, 11집 p.128.

그러나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책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성종이 왜 독서력이 감소되었는지 몇 가지 그 원인을 살펴본다.

첫째, 8년 이후부터는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난 시기이며 또한 왕비 윤씨와 불화가 심했던 시기이다. 성종 8년(1477)에는 왕비가 극약을 숨겨 후궁을 독살하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성종 10년(1479)에는 왕이 규방출입을 자주한다하여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는 이유로 폐비가 되어 13년(1482)에 사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성종은 부인 12명에 16남 12녀를 두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성종의 독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는 단독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원상제도를 폐지하는 등 낮에는 왕권강화에 여념이 없었고, 셋째는 집권 14년 3월 30일에 대왕대비 승하로 인해 4월 1일부터 15일간 독서를 중지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기타 정지사유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날씨, 왕족의 제사, 질병 등으로 중지되었다. 따라서 성종의 독서력 저하는 뒷날 경연의 중요성을 희석시킨 결과로 이어진다.

5. 結 言

이상은 조선조 성종이 13세에 왕위에 올라 25년 동안 경연제도에 따라 책을 읽고 토론을 실시해왔던 讀書歷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종의 독서는 조강, 주장, 석강, 야대 등 1일 4회로 보다 구체적인 독서가 이루어졌다. 초기부터 경연관의 수, 경연장소, 경연 시 의복, 경연방법 등이 확정되면서 경연제도가 전조에 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2) 성종이 집권 25년 동안 경연에서 읽고 토론한 책은 「論語」, 「孟子」, 「中庸」, 「國朝寶鑑」, 「書經」, 「詩經」, 「春秋」<左氏傳>, 「綱目」, 「易學啓蒙」, 「綱目續編」, 「資治通鑑」, 「高麗史」, 「宋鑑」, 「名臣言行錄」, 「大學衍義」, 「周易」, 「禮記」, 「國語」, 「貞觀政要」, 「史文騰錄」, 「前漢書」, 「近思錄」, 「家語」, 「晉書」, 「性理大全」, 「文獻通考」, 「史記」 등 27종이다. 이 중 2회 이상 읽은 책은 「論語」와 「孟子」이며, 가장 장기간 읽은 책은 「綱目」과 「綱目續編」, 「資治通鑑」으로 「綱目」을 5년(1474)부터 시작하여 8년까지 읽고 11년부터 「綱目續編」, 12부터 「資治通鑑」을 읽기 시작하여 18년(1487) 3월에 완독하였으니 책 3종이 13년이란 세월이 소요된 것이다. 또한 27종의 책을 읽는데 그 동안 성종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한 경연관만 해도 총 200여명 이상이었다.

3) 성종이 읽고 싶었지만 경연관들의 반대로 읽지 못한 책은 「莊子」, 「老子」, 「列子」, 「戰國策」, 「文翰類選」, 「三國史」 등이다.

4) 경연에서 독서한 횟수로 조강은 3,774회, 주장은 2,324회, 석강은 2,142회, 야대는 508회로 총 8,748회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년부터 7년(1476)까지는 거의 매일 책과 함께 살았음을 볼 수 있으나 성종 8년(1477) 성년이 되어 스스로 왕권을 행사하면서부터는 독서의 횟수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곧 성종의 독서의욕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독서력의 저하는 성인이 되면서부터 더욱 두드러졌다. 그 사유는 폐비윤씨 사건, 문정왕후 승하, 무더위와 추위, 신병상의 사유, 대내외적인 政事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으로 성종의 독서행태는 조강, 주장, 석강, 야대로 나누어 독서를 실시하였지만 초기에는 경연관들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왕을 가르치면서 책의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책을 읽으면서 경연관들과 토론을 거친 후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 독서토론 중에도 필요한 책을 간행하는데 소홀한 점이 없었고, 궁금하거나 논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경연관들에게 질문하여 이해를 구했으며, 자신의 논리를 들려주기도 하였다. 더욱이 성종은 죽음에 임박해서 까지 경연에서 읽어야 할 『大學衍義』를 선정해 놓고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면 독서에 대한 애착이 남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原典

朝鮮王朝實錄
論語
孟子
經國大典
增補文獻備考
慵齋叢話
朝野僉載
燃藜室記述

2. 論文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91.
金重權, “朝鮮 文宗·端宗年間 經筵에서의 讀書討論 考察.” 『書誌學研究』 제30집(2005. 6), 405-436.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12), 131-186.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附錄> 成宗의 讀書討論日誌

經筵日程	經筵資料	讀書討論內容	經筵官 및 討論者	區分
1年 1月 7日	論語	學而篇	鄭自英	經筵
1月 25日	論語	八佾篇 13節	都承旨 李克增	經筵
2月 20日	論語	學而篇부터 復習		夕講
12月 11日	孟子	臧倉이 禮義는 어진이로 말미암아 나오 는 것인데, 孟子의 나중 喪禮가 먼저 상 례보다 넘치게 하였으니, 임금께서는 만나보지 마십시오. 하므로, 공이 「그렇 다」고 했다는 부분	同知事 李克培 參 贊官 金之慶	晝講
2年 1月 22日	孟子	左右에서 모두 어질다고 하더라도 「하 지 않다는 내용	侍講官 金季昌	夕講
1月 30日	孟子	어떤 것을 남의 말을 안다고 합니까 ?하 는 부분	侍講官 金季昌	夕講
2月 15日	孟子	藤文公章句上	尹子雲, 金國光, 鄭 自英	經筵
4月 14日	孟子	孰不爲守 守身 守之本地	同知事 李承召	晝講
5月 11日	孟子	由君子觀之 則今之求富貴利達者 其妻 妾不羞也 而不相泣者 幾希矣 (5/11)	同知事 李承召	晝講
7月 1日	孟子	마음을 풀어 놓고서 이를 찾을 줄을 알 지 못한다는 부분	知事 李克培	晝講
閏9月 25日	中庸	30章에 대해서	李承召	晝講
閏9月 27日	國朝寶鑑	太祖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平康이었 으면 한 필 말을 타고 피하였을 것이다' 라는 대목	經筵官 朴孝元	夜對
10月 9日	國朝寶鑑	활 1장씩 선물	林士洪, 鄭徽	夜對
3年 4月 20日	書經	洪範篇 '王省惟歲'	同知事 徐居正, 侍 讀官 金紐	晝講
4月 26日	書經	大誥, 天毖我成功	李承召, 侍講官 任 士洪	晝講
4月 28日	書經	논어의 주와 서경의 주 차이점토론	侍講官 朴始亨, 都 承旨 鄭孝常	夜對
5月 29日	書經	惠篤叙	李承召	晝講
6月 6日	書經	無逸篇	同知事 鄭自英	經筵
6月 22日	書經	立政篇	知事 盧思愼	晝講
9月 30日	詩經	채두권 (杕杜篇)	領事 金國光	經筵
4年 1月 9日	詩經	종을 치매 그 소리 땡땡 하거늘(鼓鍾鐃 鐃)이란 대목	侍講官 金永堅	經筵
3月 12日	詩經	비록 老成人이 없으나 오히려 典刑이 남 아 있거늘 이란 대목	同知事 李承召	經筵
5年 3月 3日	春秋	韓明澮가 「강목」추진	知事 姜希孟	經筵
5月 28日	綱目	汲黯이 武帝를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 서 겉으로 仁義를 베풀었다고 하였다	司諫 朴崇質	經筵

6月 16日	綱目	漢武帝가 이처럼 부지런히 신선을 찾는 이유	同知事 李承召	經筵
閏6月 8日	綱目	貢禹	領事 申叔舟	經筵
閏6月 9日	綱目	石顯	知事 姜希孟	經筵
8月 19日	綱目	顯宗朝 原陵	知事 盧思愼	經筵
6年 2月 8日	高麗史	毅宗 15年	侍講官 柳舜 同副承旨 玄碩圭	夜對
6年 12月 25日	宋鑑	無逸 로 그림을 그린 내용	侍講官 李孟賢 參贊官 任士洪	夕講
7月 23日	通鑑綱目	‘高允 같은 사람은 참으로 충신이다 朕이 과실이 있으면 일찍이 面對해 말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朕은 그 과실을 들었는데도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니, 이를 충신이라고 이르지 않겠는가?’하는 대목	同知事 李承召	經筵
7年 5月 12日	綱目	‘梁나라 武帝가 세 번 捨身하였다 라는 대목	參贊官 孫比長 同副承旨 洪貫達 右副承旨 孫舜孝	夕講
6月 12日	通鑑綱目	姚崇曰	知事 李克培	經筵
7月 19日	綱目	元載	李承召	經筵
8月 22日	綱目	唐 德宗	李承召	經筵
10月 1日	綱目	‘唐나라 文宗이 詩學士 제도를 두려고 하니, 李珣이 詩人은 浮薄하여 사리에 유익함이 없습니다.’라는 대목	李承召	經筵
10月 21日	名臣言行錄	張詠傳을 읽으면서 임금이 말하기를張詠의 殺人은 당연한 것인가? 질문	任士洪	夕講
8年 2月 27日	綱目	魏徵이 唐나라 太宗에게 말한 내용	參贊官 孫比長	夕講
4月 16日	大學衍義	唐나라 玄宗이 楊慎矜 으로 大府 의出納을 맡게 한 대목	都承旨 玄碩圭	夕講
4月 19日	綱目	唐나라 玄宗이 天寶 年號를 고치자 群臣이 하례하였다는 대목	侍講官 盧公弼 侍讀官 金訢	夕講
6月 23日	周易	蠱卦	檢討官 成聘年	經筵
7月 11日	周易	剝卦篇	檢討官 李昌臣	經筵
7月 18日	綱目	李泌이 衡山에 돌아가기를 군이 청하였다는 대목	左承旨 李克基	夕講
11月 4日	綱目	憲宗이 李絳과 더불어 朋黨을 論한 대목	左副承旨 孫比長	經筵
11月 20日	綱目	泗洲戒壇	侍讀官 安琛 孫比長	夕講
9年 1月 4日	易學啓蒙	俞鎮 崔自濱에 석강에 윤번으로 진강하도록 함.	성종이 명령함	夕講
1月 17日	禮記	‘天子를 위하여 외 爪를 깎아 준 자 라는 대목	李承召	經筵
3月 18日	綱目	同昌公主가 卒하니 懿宗이 醫官 2명 인을 죽였다는 대목	參贊官 俞鎮	夕講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5月 4日	綱目續篇	‘李谿를 同平章事로 삼았다.’는 대목	左承旨 朴叔秦, 侍講官 李亨元	夕講
8月 21日	禮記	內則을 講하다가,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에는 첫닭이 울면 모두 세수하고 양치질한다는 대목	李承召	晝講
10月 7日	禮記	喪服小記의 ‘祖父가 죽고 祖母의 후사가 된 자는 3年喪을 입는다.’부분	李承召	經筵
10年 1月 20日	大學衍義	無爲而天下治	侍講官 安琛	夕講
3月 28日	論語	述而篇	參贊官 成倪	夕講
4月 22日	論語	子罕篇	侍讀官 成聘年	夕講
4月 22日	左傳	隱公4年	曹偉, 李承召	晝講
4月 26日	大學衍義	工共·驩兜가 堯임금 때에도 섞여 살았으니, 소인이 반드시 없으리라는 것을 어찌 보증할 수 있겠는가? 대목	大司諫 成倪	經筵
5月 4日	大學衍義	‘用舍하는 사이에 지위가 바뀌지 않는 사례가 적다.’라는 대목	檢討官 鄭誠謹, 知事 李克培	經筵
5月 12日	大學衍義	‘言行은 君子가 天地를 움직이는 까닭이다.’라는 대목	侍讀官 李昌臣	經筵
5月 15日	大學衍義	‘낮에 찾는 것으로써 夜對할 것인데, 또 반드시 夜對를 加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는 대목	成倪, 侍讀官 成聘年	經筵
5月 18日	論語	‘孔子가 言論이 돈독하다 하여 이를 인정한다면 그가 과연 君子일까? 外貌만 꾸미는 자일까?’라고 한 대목	侍讀官 李世匡, 檢討官 曹偉	夕講
5月 26日	大學衍義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대목	侍讀官 李昌臣, 同知事 李承召	經筵
6月 9日	論語	‘백성이 信義가 없으면 자립하지 못한다.’는 대목	李昌臣, 都承旨 洪貴達	夕講
6月 18日	大學衍義	賈誼가 풍속을 좋아함	同知事 鄭孝常, 侍讀官 李世匡, 檢討官 鄭誠謹	經筵
7月 8日	大學衍義	옛 부터 危亂한 세상에서도 일찍이 충성스러운 말이 없지 않았다.	侍講官 李祐甫, 領事 盧思愼	經筵
7月 16日	大學衍義	眞德秀의 「大學衍義」에는 歷代 佛·仙의 일을 실어 虛誕의 그릇됨을 나타내었으니, 書籍이 하나가 아니로되 聖學에 補益됨이 있는 것은 이 서책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	侍讀官 成聘年	經筵
7月 24日	大學衍義	‘漢나라 文帝 때에 사람의 과실을 말함을 부끄럽게 여기었다.’는 대목	侍讀官 李昌臣, 李承召	經筵
7月 25日	大學衍義	孟子가 말한, ‘ 먼 곳에서 온 신하를 살피되 그가 정하고 있는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피고, 가까운 신하는 살피되 어떤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가를 살핀다.’라고 한 대목	侍講官 李祐甫	經筵

8月 21日	論語	子張이 통달함을 묻는 데에 이르러, 성종이, 이름을 얻으려고 한 일은 그 上下에 있어서 모두 不可한 것이다.	侍講官 李祐甫 左承旨 金升卿	夕講
10月 20日	左傳	진나라에서 돌이 말하였다(石言于晉).	侍讀官 李昌臣	經筵
10月 24日	大學衍義	后를 폐하여 昭臺宮에 두었다는 내용	司經 閔師騫, 侍講官 成俔	經筵
10月 28日		내용없음	侍讀官 金訥	夕講
閏10月 7日	國語	내용없음	掌令 成健	經筵
閏10月 17日		내용없음	侍講官 成俔, 同知事 鄭孝常, 典經 安潤孫	經筵
閏10月 18日		내용없음	侍讀官 李世匡	經筵
11月 4日	貞觀政要	太宗이 長孫順德에게 명주를 하사한 이유	都承旨 金升卿, 侍講官 李祐甫	夜對
11年 2月 4日	通鑑續編	浮薄한 新進의 사람은 쓸 수가 없다.	李沆, 同知事 李坡	經筵
2月 14日	綱目續編	친자가 泰山에서 封禪하였다.	李坡	經筵
2月 14日	左傳	‘叔向이 말하기를 “齊나라는 어떤가?” 하니, 晏子가 말하기를, “이것은 말세이다. 제나라는 陳氏의 세상이 될 것이다”	侍講官 李祐甫	晝講
2月 25日	綱目續編	崔鹽法	李坡	經筵
3月 18日	綱目續編	資政殿學士 范仲淹이卒하니, 諡號기를 文正이라 하였다.	侍讀官 李昌臣, 李坡	經筵
3月 21日	綱目續編	‘2년 3월에 舉人을 親試하였다 라는 부분	李世匡, 執義 李德崇, 領事 金國光, 司諫 李世弼	經筵
4月 1日	綱目續編	1. 3년에 한 차례 과거를 보임. 2. 蔣之奇가 歐陽修를 탄핵 3. 王安石이 江寧府의 지방 장관이 되었다는 대목	李昌臣, 司諫 李世弼, 李昌臣, 檢討官 曹偉, 同知事 李克基, 李德崇	經筵
4月 11日	綱目續編	세금을 독촉하고 강제로 분배	領事 洪應	經筵
4月 16日	綱目續編	詔書를 내려 여러 고을에 學田을 지급하였다.	侍講官 安琛, 檢討官 曹偉, 領事沈滄	經筵
5月 21日	綱目續編	宋 神宗이 蘇軾의 文章을 보고 말하기를, ‘기묘하도다, 기묘하도다!’	檢討官 曹偉, 執義 李德崇	經筵
7月 29日	綱目續編	李綱이 파면된 문제	李承召, 持平 崔漢侯, 正言 尹碩輔	經筵
9月 4日	綱目續編	遼나라 道宗이 사찰에 노비를 주었다는 대목.	侍讀官 李世匡, 司諫 李世弼, 掌令 李仁錫	經筵
9月 5日	孟子	子路는 남이 그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말해 주면 기뻐하였다는 대목	侍講官 安琛	夕講
12年 1月 5日	資治通鑑	晁錯의 徙邊之策	同知事 李坡, 鄭伋, 領事 尹弼商	經筵
8月 17日	漢書	汲黯傳의 陛下는 여러 신하를 씀이 마	侍講官 李祐甫	晝講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치 싶을 쌓는 것 같습니다.'부분		
9月 11日	高麗史	顯宗 18년에 慧日寺와 重光寺를 創建	侍讀官 金訢	夕講
9月 17日	資治通鑑	散騎常侍 劉邵 등이 漢法을 추려서 要約하여 新律 18편을 制定하였다.	侍讀官 金訢, 知事 徐居正	經筵
9月 20日	高麗史	중 1만 명을 秘庭에서 대접했다	李孟賢	夕講
10月 15日	高麗史	고려 임금의 玄化寺에 갔다는 대목	侍講官 李命崇, 左承旨 李吉甫, 檢討官 曹偉	夕講
10月 29日	高麗史	절을 짓고 답을 쌓았다는 문제	檢討官 閔師騫	夕講
12月 2日	高麗史	興王寺 金塔城에 대한 記事	閔師騫, 左副承旨 李世佐, 司經 安潤孫	夕講
13年 1月 19日	高麗史	宣宗이 闕兵을 하려 하니, 御史臺에서 「兵士는 金에 해당하는데, 금은 木을 이깁니다. 바야흐로 봄이어서 盛德이 木에 있는데, 열병을 함은 生氣에 거슬리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侍讀官 鄭誠謹	夕講
4月 14日	高麗史	왕이 法王寺와 神衆院에 거둥하여 明鏡殿에 나아가서 僧 德緣으로 王師를 삼았다는 내용	侍讀官 金訢	夕講
8月 3日	資治通鑑	魏나라 임금이 官吏에게 詔命을 내려주는데 不法한 자를 고발 하게 한 대목	同知事 李坡	經筵
閏8月 13日	吏文彙錄	중국에서 '外國人의 出入을 搜檢하는 榜文'	侍講官 李命崇	晝講
閏8月 14日	高麗史	金珣이란 사람에 대해	侍講官 金宗直	晝講
10月 29日	前漢書	王尊이 黃河의 물이 많아서 넘치므로 白馬를 물속에 가라앉혀서 水神에게 제사하니, 堤防이 터져 물이 넘쳐 왔으나 떠나가지 않았다는 부분	侍讀官 成健	晝講
14年 1月 15日	資治通鑑	梁나라 散騎常侍 賀琛이 네 가지 일을 아뢰어 진술한 내용	同知事 李克基, 檢討官 宋軼	經筵
1月 27日	資治通鑑	梁나라 武帝가 臺城에서 패한 내용	李克基, 侍讀官 閔師騫, 執義 金秀光, 司諫 柳自漢	經筵
3月 8日	前漢書	谷永이 申伯을 引證하여 王鳳에게 아첨하였다는 내용	侍讀官 閔師騫	晝講
8月 16日	前漢書	公孫弘의 上書에 風化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미치는 것이니 폐하께서 首善을 세우고 학교를 일으키소서.	檢討官 宋軼	夕講
9月 11日	近思錄	孀婦는 이치적으로 取할 수 없다.	侍讀官 閔師騫	晝講
9月 16日	家語	그 아들을 알자면 그 아버지를 보고자 한다는 기사와 「珠聯詩格」註解 문제	參贊官 金宗直	夜對
10月 5日	近思錄	쓰기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	參贊官 金宗直	晝講

		을 부리되 때를 맞추어 한다.		
10月 29日	近思錄	聖人의 量은 하늘과 같다는 부분	檢討官 宋軼	書講
11月 12日	近思錄	惟利祿之誘 最害人	金宗直, 閔師騫	書講
15年 5月 12日	尙書	律呂 隔八相生法 (尙書)	金應箕	經筵
6月 5日	資治通鑑	馬周가 州縣에 武人을 많이 쓰는 것을 논하였다는 부분	侍講官 曹偉, 同知事 李瓊全	經筵
6月 19日	資治通鑑	唐紀의 太宗이 말하기를, 朕에게 잘못이 있으면 卿도 그 조짐을 諫止해야 한다는 기사	侍講官 曹偉, 知事 李坡	經筵
9月 11日	尙書	益稷에, 보필하는 신하가 정직하여 임금 이 움직이게 되면, 크게 호응하여 그의 뜻을 따른다는 부분	侍講官 金訢	書講
10月 4日	資治通鑑	唐나라 武后가 내외 9품 이상 및 백성이 모두 스스로 천거하는 제도	許琮	經筵
11月 12日	前漢書	賈誼傳의 治安策에, 「풍속을 옮겨 바꾸어서 천하로 하여금 道에 向하게 하는 것은 俗吏의 능히 할 바가 아니다.」라고 한 대목	參判 金宗直, 左承旨 成健	夕講
16年 2月 2日	書經	咸有一德篇에 자신은 훌륭하고 남은 편협하게 보지 말라. (毋自廣以狹人)	侍讀官 宋軼	書講
4月 12日	書經	說命篇의 공경하고 침묵하며 도를 생각하고 있으니, 꿈에 상제께서 나에게 훌륭한 보필을 주었다. (恭默思道 夢帝賁良弼)는 부분	侍講官 鄭誠謹	書講
4月 18日	書經	說命篇의 버슬을 악덕한 이에게 주지 말라. (爵罔及惡德)는 내용	侍講官 金訢	書講
閏4月 21日	書經	다섯째 皇極	侍讀官 宋軼	書講
8月 26日	前漢書	食貨志	同知事 金宗直	夕講
9月 28日	尙書	無逸篇을 講하다가, 太王·王季가 조심하고 두려워하였다는 부분	侍讀官 閔師騫	書講
10月 27日	前漢書	郊祀志에 '武帝가 신선을 구하였다	鄭誠謹	夕講
11月 4日	資治通鑑	唐나라 德宗記에서 陸贄가 上言 하여李萬榮을 節度使로 삼도록 명하시고 인하여 은혜가 두터운 조서를 내려 위로하소서' 라는 대목	領事 尹弼商, 同知事 蔡壽	經筵
11月 9日	前漢書	天文志	檢討官 黃啓沃, 侍讀官 趙之瑞, 都承旨 權健	夕講
11月 12日	資治通鑑	王叔文의 무리들이 張正一 등을 참소하다가 모두 연좌되어 먼 지방으로 버슬이 강등되어 쫓겨났다는 내용	侍讀官 閔師騫	經筵
11月 15日	資治通鑑	唐 憲宗記	侍讀官 李均, 同知事 蔡壽	經筵
11月 21日	資治通鑑	唐 憲宗紀	侍讀官 李均, 知事	經筵

朝鮮朝 經筵에서 成宗의 讀書歷 考察

			李克增, 大司憲 韓堰	
12月 15日	資治通鑑	韓愈가 佛骨表를 올렸다가 潮州刺史로 좌천당한 내용	閔師騫, 金宗直	經筵
12月 25日	資治通鑑	唐나라 文宗 太和 원년(827)에 太僕卿 高瑀를 忠武節度使로 삼은 내용	同知事 蔡壽, 掌令 李誼	經筵
17年 1月 8日	資治通鑑	王涯가 처음에 임금이 仲言을 쓰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諫하는 상소를 草하여 매우 분격하다가 조금 뒤에 임금의 뜻이 건고한 것을 보고 또 그 당이 성한 것을 두려워 드디어 중도에서 변하였는데, 조금 뒤에 중언을 四門助教로 삼으니 給事中 鄭肅·韓次가 勅書를 奉還하였다는 부분	蔡壽, 侍讀官 金訢	經筵
1月 11日	資治通鑑	李石이 韓益을 기용하게 하여 度支의 일을 맡겼다가 한익이 贓罪에 연좌되어 옥에 갇힌 내용	領事 洪應	經筵
1月 19日	資治通鑑	임금이 비록 길으로는 仇士良을 높이고 사랑하나 속으로는 실상 꺼리고 싫어하자, 구사량이 자못 깨닫고서 드디어 늙고 병들었다는 것으로 散秩을 구하였다는 내용	知事 李坡	經筵
1月 29日	前漢書	五行志	侍讀官 閔師騫	晝講
2月 2日	資治通鑑	宣宗이 諫 함을 받아들였다는 부분	侍讀官 俞好仁, 領事 尹弼商, 知事 李坡, 執義 姜居孝, 大司諫 韓堰	經筵
2月 3日	資治通鑑	‘淮南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流亡하였다.’는 기사	同知事 蔡壽	經筵
11月 10日	資治通鑑	後唐明宗紀	洪應, 大司憲 李瓊全, 大司諫 金首孫, 特進官 李德良, 特進官 柳輕	經筵
18年 3月 14日	論語	道千乘之國	侍讀官 李承健	經筵
4月 15日	論語	孔子가 公治長에 대해서 말한 대문	同知事 李瓊全	經筵
8月 16日	論語	공자가 衛나라에 갈 적에 염유가 수레를 몰았다는 기사	特進官 許琮	經筵
10月 21日	晉書	皇甫謐이 遺言으로 薄葬하게 한 대목	侍讀官 李承健	夕講
21年 8月 21日	性理大全	그 놓은 것을 거두고 그 좋은 것을 둔다는 내용	侍讀官 鄭光世	經筵
22年 3月 5日	文獻通考	象緯考	記事官 李璫, 侍講官 金應箕	夕講
10月 21日	性理大全	어진 제상은 佞幸과 交納하지 않는데 간신은 영행과 交結한다는 내용	侍講官 金應箕	經筵
11月 6日	性理大全	옛 聖王이 능히 간귀(姦宄)를 교화시키	領事 洪應	經筵

		선량하게 만든 것은 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목		
11月 16日	性理大全	신하가 임금에게 아첨하고 뜻을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기사	司諫 安彭命	經筵
12月 7日	性理大全	君子는 節概를 지키고 大義에 죽는다	侍講官 表沿洙	經筵
12月 12日	性理大全	王者는 백성을 富하게 하고, 霸者는 나라를 富하게 한다.	掌令 李琚	經筵
23年 1月 12日	中庸	鬼神章	侍讀官 李達善	經筵
2月 4日	中庸或問	忠恕	參贊官 安琛	經筵
11月 8日	孟子	오직 大人은 임금의 마음의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내용	參贊官 安琛	經筵
12月 15日	孟子	程子가 이르기를, '임금이 하루 사이에 어진 士大夫를 접견할 때가 많고 宦官과 궁궐을 친한 때가 적으면 가히 氣質을 涵養하고 德性을 薰陶할 수 있다는 내용.	侍讀官 俞好仁	經筵
24年 11月10日	史記	太倉公傳, 聖人이 機微를 알아 의원으로 하여금 일찍 從事하게 하면 병도 낫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檢討官 權五福	書講
25年 1月 5日	論語	'孔子가 匡에서 危難을 당하였을 때 顏淵이 뒤늦게 왔다.	侍講官 權柱	經筵
1月 9日	論語	顏淵이 仁에 대하여 물으니, 孔子가 말하기를, 「克己하여 禮를 회복하는 것이 仁이다는 내용	侍講官 表沿洙	經筵
2月 13日	論語	憲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孔子가 일을 행함이 있는 데로 힘써 나가도록 권면했다.	侍講官 宋軼	經筵
8月 21日	尙書	서문(하늘을 말할 때에는 그 마음의 좇아 나온 바를 엄히 하고, 백성을 말할 때에는 그 마음이 나와서 베푸는 바를 삼가 한다)는 내용	侍讀官 權瑠, 李承健, 同知中樞府事 蔡壽, 朴安性, 特進官 柳子光, 司諫院 司諫 洪沔	經筵
8月 26日	大學衍義	성중이 대학연의를 진강하도록 함.		夕講